

한양로타리클럽, PHF 15구좌 약정, 회원 100명 클럽 목표!

- 8.21(월) 더 플라자호텔



한양로타리클럽의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주회가 8월 21일(월) 더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최경순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순동 총재는 이시훈 2지역대표와 최진욱 사무총장과 함께 방문하여 한양로타리클럽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리딩 클럽으로서 지구 기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하였다.

최경순 한양RC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모여 아름다운 숲을 형성하듯 우리 한양로타리클럽도 회원 한분 한분이 뜻을 모아 62년의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 회원 모두 힘을 부여 한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이순동 총재님의 ‘Family together’ 지구운영 목표를 기분 전략으로 삼고, 모든 회원 및 가족 친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봉사의 참여와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이순동 총재는 “1955년에 창립을 해서 우리나라 로타리의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시며, 긴 세월 동안 한양로타리클럽이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회원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며 “3650지구의 신 로타리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그 기본 전략으로 가족과 함께 봉사하고 활동하는 ‘패밀리 투게더’를 강조하고, 최경순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클럽 회원들이 합심하여 클럽 목표를 달성해주시고, 한양로타리클럽을 더욱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실천적인 클럽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 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총재공식방문 환영의 의미로 재단기부에 설야 최경순 회장을 비롯하여 추정 고성대 전 총재 5구좌, 남훈 금진호, 춘우 이영수, 주암 박세영, 일송 장형식, 인곡 이종철, 평헌 심상돈, 운천 이병환, 지산 김재철, 만정 윤구홍 회원이 총 PHF 15구좌와 봉사의 인 1구좌를 기부 약정하였으며, 신입회원 김영수(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이명희(주) 참공간 디자인) 대표가 입회선서를 하고 로타리 뱃지를 전달받았다.

서울중앙로타리클럽, 테마 넥타이·스카프로 한마음 환영

- 9.5(화) 밀레니엄 힐튼호텔



서울중앙로타리클럽(회장 김석규)의 총재공식방문이 지난 9월 5일(화) 밀레니엄 힐튼호텔 3층 코랄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동 총재와 김정근 6지역 대표, 서울중앙RC 소속 박영구 전 총재, 박수부 차차기총재를 비롯하여, 회원 26명이 참석하여 이순동 총재의 클럽 방문을 환영하였다.

이순동 총재의 방문을 맞이하여 수산 박영구 전총재가 추천하여 가입한 장미경 신입회원의 입회식이 있었으며 조동원 제4대 회장은 멋진 건배사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창에 따라 외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또한 박수부 차차기총재가 금년도 테마 넥타이와 스카프를 남여 회원 모두에게 선물하여, 모든 회원들이 총재공식방문에 맞춰 테마 넥타이와 스카프를 착용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아울러 재단기부 13구좌가 약정되고 이순동 총재의 패밀리 투게터 회원증강 전략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클럽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었다.





서울정동로타리클럽, 회원증강으로 클럽·지구 동반 성장

- 9.5(화) 프리마호텔

서울정동로타리클럽(회장 변기태)은 총재공식방문이 9월 5일(화) 프리마호텔 3층 백웅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동 총재와 김정균 6지역 대표를 비롯하여, 회원 10명이 참석하여 이순동 총재의 클럽 방문을 환영하였다.

조찬 주회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회장, 총무와 함께한 클럽협의회에서는 클럽발전을 위한 여러 총언과 함께 금회기에 추진하는 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클럽의 현황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 봉사계획, 회원증강, 기부 현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순동 총재는 연설을 통해 “Family Together는 그저 회원 중에 가족을 조금 늘리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를 조금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타리 클럽은 개인끼리의 회원연합에서 가족끼리 연합하는 가정연합으로 대변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적극적인 회원증강을 강조했다.

서울코암로타리클럽, 창립 10주년 맞아 도약 전기로

- 9.6(수) ALOFT 강남 서울호텔



서울코암로타리클럽(회장 이영준)은 2017년 9월 6일(수) ALOFT강남 서울호텔 2층에서 총재공식방문주회를 개최했다.

주회 전에는 이순동 총재와 이흥수 1지역 대표, 서울코암 로타리클럽 이영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하여 클럽현황 보고에 이어 위원회 별 사업에 대해서 클럽협의회를 가졌다.

이순동 총재는 서울코암 로타리클럽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3560지구의 모범클럽으로 계속 발전해주시기를 당부했고, 금회기에 패밀리 투게더 회원증강 전략으로 가족 회원의 영입을 적극 당부했다.

서울코암로타리클럽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이순동 총재의 열정에 박수와 함께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단체사진 촬영으로 공식방문 주회를 마무리했다.